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인프라 동향 보고(10.24)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구분	내용	비고
은행간 환율	110.50 Tk/USD (전주대비 0.00△)	'23.10.24 기준
기준금리	4% 유지	'23.09월 기준
월평균 시중금리	6.41% (전월대비 0.13▽)	'23.09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10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Yield changed +0.0 bp during last week, +0.0 bp during last month, +29.5 bp during last year.

Current Yield is close to **1 year maximum value**

Period	Change	Min	Range	Max
1 Week	0.0 bp	8.505 % Oct 19, 2023	No change	8.505 % Oct 26, 2023
1 Month	0.0 bp	8.505 % Sep 26, 2023	No change	8.505 % Oct 26, 2023
6 Months	0.0 bp	8.505 % Apr 26, 2023	No change	8.505 % Oct 26, 2023
1 Year	+29.5 bp	8.210 % Oct 26, 2022		8.510 % Jan 14, 2023

Current Yield: 8.505%

□ 정부 경제정책의 지연은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을 초래

- 지난 18개월 동안 방글라데시는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물가상승을 억제, 외환보유고 하락에 따른 선제적 조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른 일부 조치들이 도입·적용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 경제학자들은 2021년 8월 이후 절반으로 줄어든 지급준비금의 잠식을 막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 정부의 조치가 지연될 경우, 거시경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대외 요인과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외환보유액 하락 등 내부 요인에 따른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주요한 경제적 조치를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
-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에 약 407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 2021-22년 말에는 334억 달러를 보유. 2023년 10월 18일에는 209억 6천만달러 보유. 송금 유입액은 9월에 41개월 만에 최저치인 13억 4천만 달러로 떨어짐.

□ 정부, 2025-26 회계연도까지 GDP의 11.2% 세금징수 목표

- 재정부 정책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말까지 GDP의 11.2%에 달하는 총수입을 징수할 계획.
- 방글라데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 GDP의 5% 정도인 재정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조세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는 세입 징수 개선을 위해 여러 시책(세수 규모와 납세자 수를 모두 증가시켜 세입 징수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강구하는 중.

2. 건설·인프라 시장 동향

□ 신재생에너지 분야, 2030년까지 37,220개 일자리 창출

- 2023년 무지브 기후변영계획(MCPP)에 따르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이후 2030년까지 총 8,919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약 37,2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2030년에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의 총 발전량이 현재 24,823MW에서 17,945MW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방글라데시 전력의 대부분은 화석연료(50%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는 4.5%에서 생산. (재생에너지의 85%는 태양열 발전소에서, 10%는 바이오매스에서, 5%는 풍력발전소에서 생산)

□ 방가반두 터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접속로 개발

- 카르나폴리 강 아래에 있는 3.4킬로미터 길이의 방가반두 셰이크 무집 라흐만 터널은 10월 28일 셰이크 하시나 총리에 의해 개통될 예정. 약 10,690크로어의 비용으로 건설된 이 터널은 이 나라의 첫 수중 고속도로가 될 것.
- 치타공상공회의소(CCI)가 주최한 '방가반두 터널: 비전 2041을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방가반두 셰이크 무집 라흐만 터널의 기대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카와 차토그램 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 또한 카르나폴리 강 남쪽의 급속한 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카-차토그램 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 또한, 다카와 주요 항구 도시 사이에 물류유통 개선을 위해 다카-차토그램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향후 5년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

□ 하시나 총리, 39개 지구 150개 교량 동시 개통

-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39개 지구, 150개의 다리와 14개의 고가도로를 동시에 개통.
- 동시에 전국에 100개의 다리가 개통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총리는 150개의 다리를 추가로 개통. (마이멘싱 40개, 다카 32개, 차토그램 27개, 라즈샤히 22개, 쿨나 12개, 바리살과 랑푸르 각 8개, 실렛 각 1개), 150개의 다리의 총 길이는 9.45km임.

□ 다카-아슬리아 고속도로

- 모하칼리를 경유하는 HSIA-Kutubkhali(다카공항-쿠투칼리) 노선의 다카 고속도로의 부분 개통(46.73km 구간 중 11.5km) 이후, 방글라데시의 두 번째 24km 고속도로(다카-아슬리아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난관에 부딪힘. 공사 착공 후 1년이 된 시점에 단지 9.5%의 진척율을 보임.
-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토지 취득 지연, 다양한 전력선 이동, 프로젝트 지역 내 다수의 구조물 제거의 어려움으로 지연 발생한다고 지적. 또한, 공항구간 시점부 공사 현장의 건설 대금 지연수취에 따른 문제도 있음. 1,755억 3천만 Tk의 본 프로젝트는 시작된 지 거의 8년 만인 작년 10월 28일에 공식 착공되었고, 마감일은 2027년이었음.
- 방글라데시 교량 당국은 2015년 1월 22일 중국 국가기계수출입회사(CMC)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다카-아슬리아 고속도로 사업에 착수. 그러나 중국 엑심은행과 대출 계약 체결이 지연(2021년 10월 26일까지)된 바 있음.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다카 고가도로 Tk48 Lakh 강도 사건

- 마더 텍스타일의 공무원들은 48Lakh(4천8백만 Taka, 5억원 수준) 신고 바나니 사무실로 가는 길에 우타라에 있는 은행에서 83Lakh을 인출해서, 35.5Lakh를 지불하고, 마지막 지불을 위해 이동중이었음.
- 고속도로 CCTV에 찍힌 영상에는 오후 4시쯤 4~5명이 차량 운행을 막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강도들은 강제로 차 안으로 진입, 이들 중 2명은 경찰 재킷을 입고 있었음.
- 차량 탑승 후,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눈가리개를 했으며, 차량을 통제하고 48klakh, 모바일 세트와 회사의 수표를 강탈함.

□ 강변과 철로에서 수많은 시신 수습중

- 최근 몇 달간 하천과 철로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후 많은 시신이 살인 피해자로 확인. 경찰 당국과 전문가들은 하천과 철로가 가해자들에 의해 시신 유기 장소로 활용돼 살인 증거를 왜곡하고 사고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밝힘.
- 2021년 이후 불과 2년 반 만에 강에서 최소 955구의 시신을 수습했고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철도 노선에서 최소 5,520구의 시신을 수습한 바 있음.
- 이들 시신 다수는 완전하거나 일부 부패한 상태에서 수습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
- 바샤니 과학기술대 범죄학·경찰학과 학과장인 오마르 파룩 교수는 "수습된 시신들을 제대로 조사하면 살해 건수가 경찰 기록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하루 평균 3명 이상의 살인이 발생한다고 전함.

□ (정치) 방글라데시의 인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음

- 국제위기그룹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비자 금지 등 추가적인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경우 방글라데시의 인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힘.
- BNP는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운동을 10월 28일 선언했으며 여당인 아와미 연맹은 BNP의 몰락이 이 날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국제 위기 그룹에 따르면 분쟁이 있는 선거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할 수 있으며, 선거 운동이나 투표와 같은 선거 관련 활동은 폭력적인 공격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여당인 아와미 연맹은 퇴진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를 감독할 과도 정부에 권력을 넘겨줄 것으로 예상. 야당은 아마도 선거를 보이콧할 것이고, 더 폭력적인 전술을 채택하면서 급진화될 수 있음.